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 “볼거리·먹거리 가득”

전국 1850개 전통시장서 진행
광주 신용동 골목형상점 등 참여
송정역 백년가게 상품 2+1 행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동참”



통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기획전 등 각종 할인행사를 선보인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판매전 및 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올해 마지막 12월 동행축제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목표로 중기부가 주최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대국민 소비 촉진 행사다. 주요 민간 유통채널, 지자체, 전통시장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며,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동행축제 기간에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주요 유

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동행축제에 참여하며 내수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14일간 전국 185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하는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가 진행된다. 축제기간 1850여개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누적) 상품 구매 영수증을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이하 카드형 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하고,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카드형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집에서 편하게 전통시장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우체국 소포, 온누리 전통시장, 배달의민족, 동네시장 장보기 등에서 온라인특별전도 진행한다. 플랫폼에 입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500여 곳의 상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3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대인시장, 나주 목사고을시장, 광주 북구 신용동 골목형상점가가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나주목사고을시장은 지난 11일 김치를 나눔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대인시장은 광장무대에 트리를 설치해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는 18일 크리스마스 홍보 물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행사 날짜는 변경

될 수 있다.

신용동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영수증을 증빙한 고객에게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하는 ‘구매인증 이벤트’, 구매 영수증 인증자 대상으로 게임(뽑기) 및 상품(캐릭터 담요 핫팩 등)을 제공하는 ‘게임부스 운영’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응모기간은 13~14일 이틀간으로, 구매 영수증은 지난 6일자부터 인정된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1등 김치냉장고 △2등 무선청소기 △3등 다이스 슈퍼소닉 등이 있으며 슬로우시티, 나주곰탕, 케이와이비타민, 장바주느언니 등 10곳의 업체가 참여한다.

또 코레일유통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송정역, 용산역, 부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등 전국 6개 주요 철도역의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2

+1 행사와 함께 구매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선보인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의 전통과 우수성을 자랑하는 소상공인 점포로, 코레일유통과 소진공이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백년가게 상품(밀키트)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철도 이용객들에게 떡볶이, 추어탕, 잡채 등 백년가게의 숨은 명품과 스토리를 전하며, 여행과 이동 중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소상공인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와 체험 이벤트를 운영한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방문해 볼거리·먹거리 등을 즐기고 성과 온기까지 가져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소형 난방 가전제품 선보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소형가전 매장에서 겨울철 가정의 온도를 올려줄 다양한 소형 난방 가전 제품을 선보인다. 대표 난방 제품인 카본히터를 비롯해 잡자리에 몸을 따뜻하게 덮어줄 탄소 온열 매트 등 다양한 난방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겨울철 건조한 가정에 필수품인 가습기 등도 준비돼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상의, 올해 FTA 교육 성료... 113명 수료

원산지증명서 특화 교육 인기
실무 중심 맞춤형 강의 ‘호평’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 FTA통상진흥센터의 올해 FTA 교육 일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12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초보자를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2회) △FTA 원산지 기초교육 △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 △FTA 수출입 통관실무 교육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교육 △FTA 원산지 발급실무·아세안 집중 공략편 교육편 등 총 7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총 113명의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증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에는 ‘FTA 원산지 발급실무·아세안 집중 공략편’ 교육을 개설해 수출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FTA 상담관세사인 박현수 강사가 진행했으며, FTA 개요,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및 판정 사례 등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한 뒤에 한-아세안 FTA 및 RCEP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리 실무, 인증수출자 인증 절차와 원산지 사후검증 등의 실무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실무 중심의 강의와 체계적인 FTA 기본지식 전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FTA센터는 교육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여러 교육들이 지역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FTA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제고하고, 무역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교육 외에도 컨설팅,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관련 상담 및 무역증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062-350-5888)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무역의 날’... 광주 20개 기업 ‘수출탑’ 영예

산업포장 등 13명 유공 포상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는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1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광주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 경제를 이끄는 수출기업과 무역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출 진흥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매년 70여명의 무역인들이 참석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20개사에 대한 수출

의 탑 시상과 수출 유공자 13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수출의 탑은 1000만불탑을 수상한 ㈜서치(의료기기)와 ㈜유창종합식품(식품)을 포함한 20개 지역 기업이 영예를 안았으며, ㈜무진서비스(공작기계)의 최은모 대표 등 13명이 산업포장을 비롯한 유공포상을 수상하며 수출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시장과 최은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들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 우리 무역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 분쟁 등으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경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기업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폭군의 소나기’ 피하는 투자로 위기 넘어야

내란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에 내던져졌다. 외국의 경제 관련 기관과 경제 전문 미디어들의 진심 어린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환율은 달러당 1440원을 오르내리며 금융위기 당시를 무색하게 하고, 코스피 지수는 단기간에 150포인트 넘게 폭락하며 국내 자금이 빠른 속도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며칠 만에 1조원 정도가 유출되고 있다고 한다. 내수가 추락하며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이제는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윤석열의 무모한 행위가 GDP 킬러로 작용할 것이고 이로 인한 대가는 한국의 국민들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나라 경제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데도 폭군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 힘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탄핵 투표에 집단으로 불참해 부결시킴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이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투자, 수출, 소비, 등 경제의 모든 분야가 위축되고 후퇴한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신뢰가 약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기관의 특성상 유화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말과 같다. 내란의 후폭풍이 길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어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정지되고 자금 유출이 가속도를 붙이며 심화됨은 물론 내수와 수출도 뒤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내란으로 인해서 정치, 외교, 안보 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큰 타격은 경제가 입을 것이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되살리기 힘들다. 경제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달리기 경주처럼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다 해도 추격하기가 어렵게

된다.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지금의 사태는 재테크에 임하고 있는 자산 투자자들에게도 힘든 상황이다. 현금을 확보하라는 경제전문가들도 많지만 경계선을 넘어서 치솟는 환율 때문에 현금은 앞서서 손해 보는 자산이 되어 버렸다. 다행인 것은 달러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금, 원자재, 등 글로벌 자산이 특정 국가의 비상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폭군의 소나기를 피하기는 투자로 위기를 넘어야 할 때다.